

8월의 사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일반 사양관리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더위에 약한 젖소들을 위해 그늘막, 송풍장치, 안개분무장치 등을 가동하면서 생산성 저하를 줄이고 더위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젖소가 고온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 저하와 번식을 저하를 일으키며, 소들이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게 되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우사 주변의 자연 또는 인공 그늘을 최대한로 이용하여 더위 먹는 소들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제일 무더운 시기이니 만큼 우유품질 저하 즉, 세균 및 체세포수 등급 저하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착유 30분전 쯤에 냉각기를 예냉시켜 착유된 우유가 최단시간내 5℃ 이하로 냉각되도록 하여 세균증식의 기회를 최소화 한다. 청결한 우체관리를 위해 우사내 통풍 조절 및 정기적 체분 작업으로 젖소의 몸체가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원활한 체열 발산을 유도해 준다. 또한 8월은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사 등 축사시설이 바람과 호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붕 및 배수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여름철에는 체세포 수가 증가되고 우유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세균수 및 체세포수의 등급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CMT를 실시하여 다른 개체로의 전염 및 우유에 대한 오염을 방지한다.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도록 꾸준한 개체관리가 중요하고 저능력우나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도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소독 횟수는 농장의 질

병상황, 주위 지역의 질병발생과 온·습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환경에 맞추어 실시하나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 소독약을 뿌렸다고 소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독약의 적정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소독은 가축 입식 전부터 시작되며, 소독순서는 청소→수세→건조→소독→가축 입식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양관리

젖소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감퇴되고 체온조절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젖소를 모니터링 함으로 식욕 부진, 유량 감소, 이상우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준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료섭취량을 최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 반추위내 발효열을 줄이고 우회단백질 및 우회지방 비율을 높여 전체사료의 영양소

를 높이며 사료의 기호성 유지를 위한 신선하고 풍미가 좋은 사료를 고려하여 급여하고 발효촉진제, 진균제, 비타민제 등 각종 첨가제를 급여한다.

고온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면, 섭취하는 사료 속에 영양소 농도가 더 많이 함유되어야 하는데, 에너지 및 미분해성 단백질 함량 증가, 질 좋은 조사료 급여로 소화발효를 최소화해 초점을 맞춰 주어야 한다. 또한 미량 광물도 더운 여름철 동안 쉽게 고갈되므로 광물질 요구량은 27°C 이상이 되면 적온일 때보다 약 10%정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조지 및 사료작물

옥수수 사일리지(담근먹이)를 만드는 시기이다. 옥수수 사일리지는 풍부한 영양가치와 뛰어난 기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급조사료 생산비용을 점차 높여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옥수수 수확은 건물 함량이 30%(27~32%)에 달하는 황숙기에 하는 것이 좋는데, 옥수수 종실을 손톱으로 눌러 보았을 때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적당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밀크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종실을 부러뜨려 뒤집어 보면 흑색층(밀크라인)이 형성되는데 이 흑색층이 종실의 1/3~2/3지점에 도달할 때가 황숙기이다.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일로의 혐기조건, 재료가 되는 옥수수의 수분 조

정, 충분한 당 함량, 우량한 유산균의 존재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일리지 제조시 절단 길이는 보통 1~2cm 정도로 하고 수확이 지연되어 수분함량이 적은 경우에는 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되도록 짧게 절단해 준다. 트렌치 사일로는 트랙터나 포크레인을 이용하면 충분한 진압이 된다. 진압이 끝난 후에는 사일로의 윗 부분을 비닐로 덮고 페타이어나 흙을 이용하여 가압하여 줌으로써 2차 발효를 방지한다. ☺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